

상용근로자 증가와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

-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, 2012년 노동조합 가입률은 10.3%로 2011년 대비 0.2%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.
 - 2012년 말 노동조합은 5,177개로 조직되어 있고, 조합원은 1,781천 명임.
 -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0년 9.8%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,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2012년까지 소폭 증가 추세에 있음.
 -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, 조합원 규모별로 보면, 조합원의 수가 1,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수는 211개(전체 5,177개)로 전체 조합 수의 4.1%를 차지하나 조합원 수는 1,289천 명(전체 노조원 1,781천 명)으로 약 72.4%를 차지함.
 - 이는 2004년 조합원 1,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인 959천 명(전체 노조원 1,537천 명)보다 330천 명 증가한 수치이고, 이들의 비중은 10.0%(2004년 62.4% → 2012년 72.4%) 증가한 수치임.

〈표 1〉 노동조합 조직률 및 현황

(단위 : %, 개소, 천 명)

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<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>										
- 노동조합 조직률 (전체 임금근로자)	12.5	11.8	11.3	12.1	12.7	12.2	11.4	10.9	11.5	12.4
- 노동조합 조직률 (상용근로자)	22.5	21.1	19.8	20.7	21.5	20.5	18.7	17.5	17.8	18.7
- 노동조합 조직률 (임시·일용근로자)	1.2	1.2	1.4	1.4	1.4	0.8	0.7	0.6	0.7	0.8
<고용노동부 집계 방식>										
노동조합 조직률	10.6	10.3	10.3	10.8	10.5	10.1	9.8	10.1	10.3	-
노동조합 수	6,017	5,971	5,889	5,099	4,886	4,689	4,420	5,120	5,177	-
조합원	1,537	1,506	1,559	1,688	1,666	1,640	1,643	1,720	1,781	-
조직대상 근로자	14,538	14,692	15,072	15,651	15,847	16,196	16,804	17,090	17,338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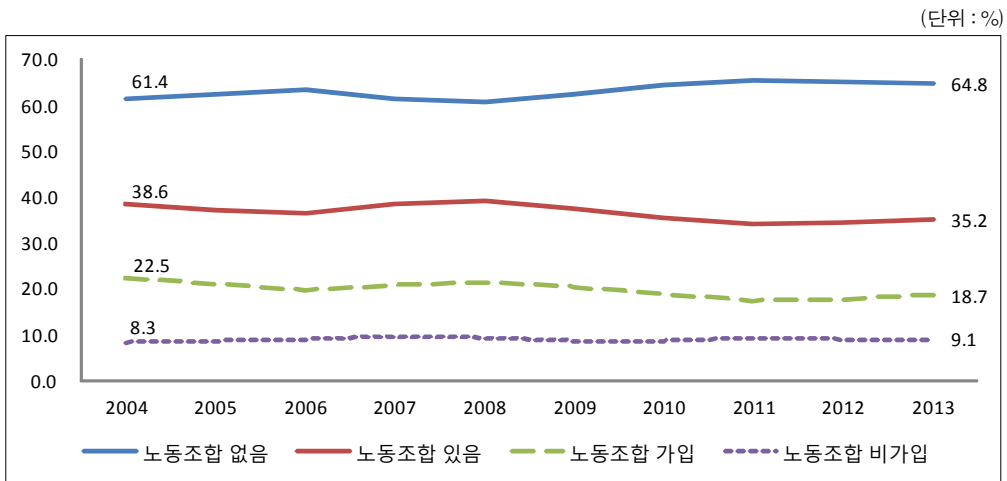
주: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, 노동조합 조직률=조합원수÷임금근로자×100

고용노동부 집계방식, 노동조합 조직률=조합원수÷(임금근로자+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)×100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』, 각 연도.

- 최근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, 이 집단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이들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.
 - － 『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』 분석결과에 따르면, 2013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.4%였으나, 이 중 상용직의 노조 조직률은 18.7%이고 임시·일용직은 0.8%임.
 - － 전체 상용근로자¹⁾ 가운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중은 2004년 8월 기준으로 61.4%였으나 2013년 8월 현재 64.8%로 증가하였고, 유노조 사업체에 속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38.2%에서 35.2%로 감소함.
 - －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가입한 상용근로자는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2004년 8월 22.5%였으나, 점차 감소하여 2004년 8월 18.7%로 나타났고, 가입하지 않은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8.3%에서 9.1%로 소폭 상승함.

[그림 1] 상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중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』 원자료.

-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,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무노조 사업체에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을 이끈 것으로 판단됨.
 - － 무노조 사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, 29인 이하 사업체에 속한 상용근로자의 수가 지난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하였고, 비중은 약 9.7% 증가하여 2013년 8월 기

1) 15세 이상 인구 전체 상용근로자.

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38.5%를 차지하고 있음.

- 반면,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(300인 이상)의 경우,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의 수는 감소하고, 전체 상용직에서의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음. **KLI**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비중

(단위: 천 명, %)

	전체 상용직	29인 이하 사업체	30~99인 이하 사업체	100~299인 이하 사업체	300인 이상 사업체
2004. 8	7,700	2,220 (28.8)	1,250 (16.2)	642 (8.3)	618 (8.0)
2005. 8	7,926	2,356 (29.7)	1,318 (16.6)	640 (8.1)	649 (8.2)
2006. 8	8,243	2,620 (31.8)	1,349 (16.4)	673 (8.2)	589 (7.1)
2007. 8	8,763	2,876 (32.8)	1,361 (15.5)	620 (7.1)	527 (6.0)
2008. 8	9,107	3,023 (33.2)	1,349 (14.8)	646 (7.1)	528 (5.8)
2009. 8	9,472	3,249 (34.3)	1,419 (15.0)	697 (7.4)	546 (5.8)
2010. 8	10,151	3,552 (35.0)	1,648 (16.2)	771 (7.6)	567 (5.6)
2011. 8	10,710	3,950 (36.9)	1,695 (15.8)	834 (7.8)	553 (5.2)
2012. 8	11,203	4,282 (38.2)	1,689 (15.1)	795 (7.1)	556 (5.0)
2013. 8	11,842	4,558 (38.5)	1,767 (14.9)	781 (6.6)	568 (4.8)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』 원자료.

(정재우, 동향분석팀 연구원)